

맥주는 어떻게 종교사·문화사·전쟁사를 바꿔놨을까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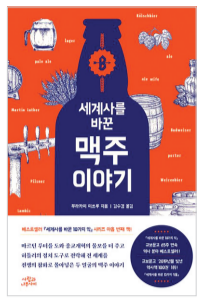
무라카미 미쓰루 지음, 김수경 옮김

“나의 맥주잔은 엉터리라네. 내가 만들었다네. 많은 사람이 감쪽같이 속았다네. 나는 물 탄 에일을 사람들에게 속여 팔았다네.”

위 글은 맥주에 물을 타서 양을 속여다가 화형을 당한 어느 ‘에일 와이프’가 심판대에 오르기 전 울조린 말이다. 에일 와이프는 영국의 14세기 후반 무렵 맛있고 품질 좋은 맥주를 생산했던 에일 하우스의 여주인을 말한다. 에일은 일종의 맥주였는데 영국 민중들에게는 기호품이 아닌 생필품이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고유의 맥주 제조법이 있었다. 딸이 결혼할 때 맥주제조법, 담금용 술을 지참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다. 영국 여인들은 대체로 자신들만의 세련된 맥주 제조법을 알고 있었다.

에일 하우스에는 에일을 마시기 위해 찾아드는 남자 손님들로 들끓었다. 에일 와이프는 남자들의 우상이었고, 에일 와이프와 관련된 일화나 추문이 많았던 모양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는 정제모



를 액체를 탄 맥주가 판매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맥주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서 전해온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좀더 파고 들어가면 맥주는 단순한 술을 넘어 인류사의 중요한 물줄기를 바꾸어놓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본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맥주 제조를 가르쳤던 무라카미 미쓰루의 ‘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 ‘지구 맥주 기행’ 등을 펴내고 맥주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맥주 전문가다.

책에는 ‘달콤하고 씹새롭고 맛과 시원한 거품의 맥혹적인 맥주’가 어떻게 종교사, 문화사, 전쟁사를 바꿔놨는지 기술하고 있다. 동서양을 종횡무진 넘나드는 이야기는 마치 분위기 좋은 맥주집에서 화기에애한 담소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환기한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이색적이다. 한번쯤 들어 봤을지라도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알려지지 않는 에피소드들이다. 일테면 이런 내용이다.

“신도 포기한 땅”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어떻게 문명의 발상지이자 맥주의 발상지가 되었을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왜 맥주를 ‘수준 낮은 술’로 깎았을까? 고대 수메르인들은 왜 맥주로 세금을 납부했으며 도시와 국가는 노동의 대가로 맥주를 지급

했을까 등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익히 알려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끈 선구자다. 그는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한 인물이었을 게다. 그런 그가 종교개혁을 이끌어난 뒤에는 ‘맥주의 힘’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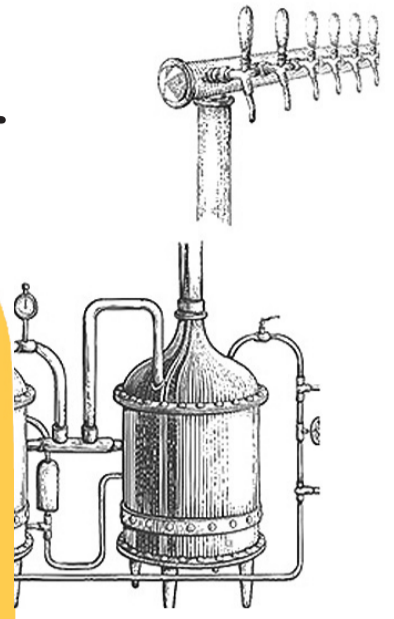
당시 사제이자 신학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환멸을 느꼈다. 부패 집단이었던 당대 가톨릭교회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죄를 면죄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였다.

루터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를 비롯해 각지의 제후들 앞에서 ‘95개 논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단에 오르기 전 루터의 비서는 아인베크 맥주가 든 1리터들이 맥주잔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루터는 술기운을 빌렸지만 담대하게 일장 연설을 펼쳤다. 결국 감동적이고 격정적인 연설은 종교사와 세계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히틀러로 대변되는 나치스의 출발점이 맥주집 호프브로이하우스라는 점도 이채롭다. 맥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던 독일 남부 뮌헨의 유명한 호프집이었다. 이곳에서 히틀러는 정치집회를 열고 폭동을 주동했다. 이후 히틀러는 또 다른 비어홀 뷔르거브로이켈러 등 일명 ‘맥주집’에서 정치 폭동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맥주잔이 도기에서 유리로 교체되면서 ‘맥주 색’이 중요하게 된 것을 비롯해 유럽 맥주 양국으로 벨기에가 손꼽히는 이유 등 다채로운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사람과 나무사시·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르틴 루터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와 신학자 요한 에크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아일랜드 쌍둥이

홍승영 지음

같은 해 다른 날에 태어난 형제를 일컫어 ‘아일랜드 쌍둥이’라고 한다. 당초 이 말은 피임을 하지 않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이민자 가정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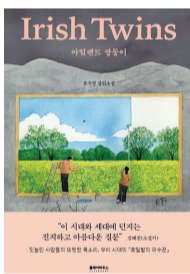
미국 남부의 어느 도시.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 선주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일랜드 쌍둥이가 태어난다. 재이와 존 형제는 우애가 깊지만 안타깝게도 형 재이가 병을 앓고 있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재이에게 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재이가 죽음에 이르러, 존은 형을 좋아하던 여성 리사와 교제한다. 그리고 군인의 길을 걷는 등 형을 대신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출간 전부터 독자는 물론 평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문학성을 인정받았던 ‘아일랜드 쌍둥이’는 이색적인 소설이다. 발간 전 펀딩에서 234%에 달할 만큼 관심을 받았다. 저자인 홍승영 작가는 현장에서 기자와 PD로 일했으며 대학에서 교수를 했다. ‘소설문학’에 단편 ‘푸른 잠자리의 환영’을 발표하며 작가의 활동을 펼쳐온 데서 보듯 다양한 방면에 폭넓은 관심을 견지해왔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흑인, 한국인 등 저마다 배경이 다른 인물들이 미국의 어느 가상의 주에 터를 잡고 사는 이야기를 그렸다. 소설에서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은 국적이나 인종을 뛰어넘은 젊은 세대의 불안과 연계된 이야기들이다. 어느 날 주 인공들은 미술치료 워크숍을 매개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김혜진 소설가는 “연대, 공감, 위로라는 말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주침은 이 시대와 세대에 던지는 진지하고 아름다운 질문처럼 느껴진다”고 평한다.

<클레이하우스·1만67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명랑의 기억을 걷다

이돈삼 지음

“진주와 하동을 거쳐 구례에서 시작된 이순신의 조선수군 재건 과정은 곡성, 순천, 보성, 장흥으로 이어졌다. 이순신은 재건한 조선수군으로 울돌목에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명랑대첩의 승리를 일궈냈다...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전라도 백성과 이룬 조선수군 재건의 길을 따라간다. 그 길에서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거친 숨결을 느끼고 때로는 탄식과 설움에 겨운 울음소리를 듣는다.”

경남 진주에서 하동을 거쳐 전남 연해안 9개 시·군까지 총연장 500km. 일본군과 진검 승부를 앞둔 정유재란 당시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남도 이순신길-조선수군 재건로’ 44일의 여정을 살피는 책이 나왔다.

‘남도 문화의 전령사’ 이돈삼이 들려주는 ‘남도 명랑의 기억을 걷다’는 이순신 장군과 백성이 걸어간 의로운 투쟁의 길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라도 백성들의 희생을 이순신의 말 ‘약無胡南 是無國家’ 한마디로 정리된다.

저자는 정유재란 당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시절 그곳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내륙의 길은 내륙으로, 바닷길로 이동한 장흥 회진에서 해남 이진과 여란진, 진도 벽파진으로 가는 길은 물에서 따라가며 조망했다.

책 중간중간 인용된 ‘난중일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의 숨겨진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해 뿐 아니라 의향 남도의 문화와 유적에 스민 선인들의 숨결과 정신까지 생생하게 전해준다.

책에 실린 220여 장의 사진은 400여 년의 시공을 넘나들며 마주하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로드무비처럼 전해준다.

<살림터·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박시백의 고려사(전5권)

박시백 지음

1996년 한겨레신문의 날카로운 시사평론가 ‘만평’으로 데뷔한 박시백은 그동안 법인들의 소소한 삶을 만화로 그려내 호평을 받아 왔다. 그가 역사로 눈을 돌리면서 출간한 ‘조선왕조실록’(2000), 일제강점기를 다룬 ‘35년’(2020) 등은 “독보적 적화를 통해 역사를 생동감 있게 살려냈다”라는 평을 받는다.

시사평론가 박시백이 ‘박시백의 고려사’ 5권에 고려왕조의 500년 역사를 담았다. 저자는 정사와 사료에 엄정히 기반을 두고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1000년 전 고려를 특유의 화풍으로 되살려냈다.

1권 ‘천하 통일과 고려의 개막’에서는 전에 없던 혼란과 역동에 휩싸였던 후삼국시대를 배경으로, 고려왕조의 새 페이지를 그린다. 개성 출신의 왕건이 918년에 분열된 한반도를 재통일했던 이야기는 오래전 역사지만 현대사에도 참조할 지점이 많아 보인다. 2권은 ‘전쟁과 외교, 작지만 강한 고려’라는 주제로 대거란 전쟁과 여진의 위협, 거들떠 반란 등 외침의 역사를 살았다. 난세에도 빛났던 영웅들과 고려의 ‘황금기’를 다룬다. 이어 고려 역사상 최대의 난인 ‘무신정변’을 필두로 시작됐던 민생 파탄, 도란의 고려사는 3권 ‘무신정변과 반란의 시대’에서 조명한다.

‘대몽항쟁의 끝, 부마국 고려(4권)’는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골의 침입과 이에 맞서 싸운 30년 항쟁을 들려준다. 원의 부마국이 된 고려가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되는 내용이다.

끝으로 ‘개혁의 실패와 망국으로의 길(5권)’에서는 권문세족의 횡포와 외침, 개혁 실패와 혁명 세력의 등장 등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Korea’의 원조 ‘고려(Corea)’의 명암을 면밀히 조명한다.

<휴머니스트·7만35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